

## 2/18(금) 신명기 3-4장 경계선상에서

“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(4:1)”

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.

아직 요단 <이편>에 서있는 것입니다.

약속의 땅은 <당연한 땅>이 아닙니다.

이스라엘은 약속과 새로운 시작, 가능성과 더불어  
옛 세대의 연장선과 미래 세대를 결정지을 결단의 경계선,  
과거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가 혼재한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.  
문제를 끊어내고 전진, 완주할 솔루션은 하나입니다.

“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 
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 
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(4:1, 40절 참고).”

순종과 불순종은 <매번하는 소리>가 아닙니다(4:2).

모든 세대, 모든 사람을 위한 생명의 지침입니다.

옛 세대는 광야 한 복판에서도 반역하며 죽어갔습니다.

심지어 새로운 세대는 <가나안> 한 복판을 걸어가야 합니다.

규례와 법도, 말씀을 새기고 여호와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.

모든 세대, 자자손손, 말씀을 듣고 준수해야 합니다.

(4:4,9-10, 40, 6:4-9, 11:18-20).

창조주 하나님, 출애굽 구원의 하나님은  
모든 여성의 신실한 보호자요 인도자셨습니다(1:31,4:7,20,32-38).  
경계선을 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곳을 정복할 것인가,  
옛 세대처럼 길가는 도중에 소멸할 것인가.  
우리 모두 결단의 경계선상에 서 있습니다.

나는 경계선상에서 나아갈 의지가 있습니까?

- ① 나는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말씀을 <생명의 지침>으로 새겨듣습니까?
- ②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솔루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까?